



도서관들이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서관 기능 외에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천에 위치한 **예술전문도서관 '다감'**도 이와같이 시민들에게 조금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의 시설공공도서관인 '다감'을 찾았다.

예술문화도시 부천의 자양분이 되겠다

예술전문도서관 '다감'은 많을 '多', 느낄 '感'을 써서 많이 느낀다는 뜻과 함께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술도서관 '다감'은 부천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북사골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서가에 책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시청각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분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잘 정리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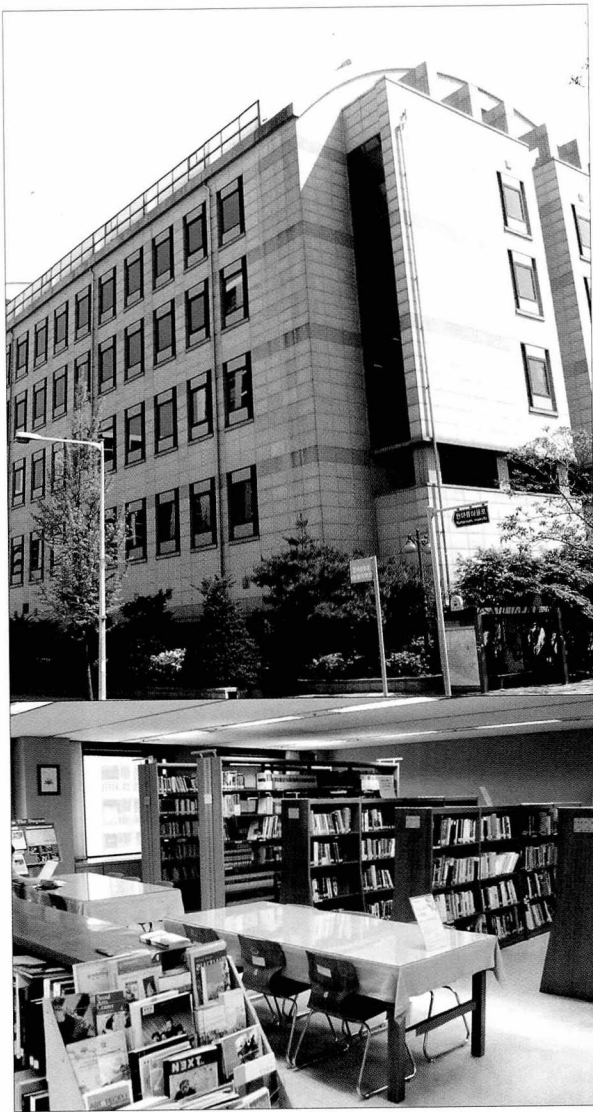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문화예술의 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시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한 방법으로 '예술전문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문화예술 DB를 마련하고, 온라인뮤직라이브러리 Naxos Music Library를 오픈하고, 다감소식지를 창간해서 배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체험행사를 진행해 부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예자료실에서 예술전문도서관 '다감'으로

예술전문도서관 '다감' (<http://lib.bcf.or.kr>)은 2000년 4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예자료실로 처음 문을 열었다. 초창기 문예자료실은 문고형태로 도서의 열람은 가능했지만, 대출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다. 초기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듬해 운영주체가 부천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이용자수가 늘었다. 이용의 문턱을 크게 낮춰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하기에는 규모나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하면서 좀더 특화된

심포지엄을 통해서 꾸준히 새로운 목표 설정해

지자체 최초의 예술도서관이면서도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천예술전문도서관 '다감'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심포지엄을 열어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가야할 방향을 정했다. '지역 예술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성(2003)',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2004)',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2005)', '예술미디어 활용교육의 실제와 전망(2005)'



예술분야특화돼 구성

예술전문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예술분야가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특화되어 있을 뿐이지, 예술 관련 자료들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문화, 역사, 과학, 철학 등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예산을 좀더 예술분야에 편성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자체에서 설립한 최초의 전문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술문화의 도시인 '부천'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문화재단이 그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강좌도 열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감'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다감'은 부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자체 예산 3000만원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도서관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지만, 전문도서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 도록을 한권 구입하는데 몇 십만원정도 하니,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책의 권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책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도서관은 분명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양질의 도서를 대신 구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출판업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서관은 서적이나 콘텐츠를 구입할 때는 제 값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줄때 함께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좋은 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일정량을 구입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책들을 국내 도서관들에게 공급하면, 일반인들도 그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인쇄출판업계에 서로 상충적이지 않은 좀 더 좋은 책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문화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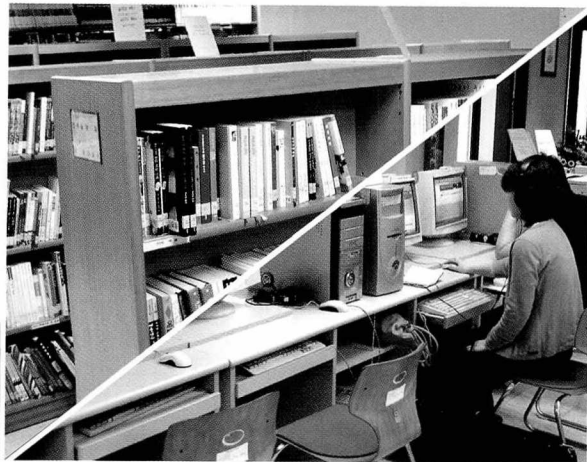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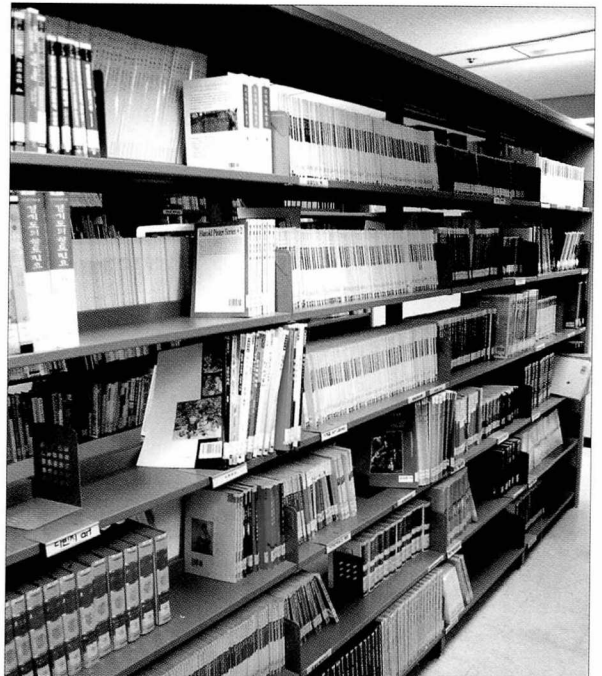
등이 그것으로, 거기서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도서관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서 '다감'은 국내에 대표적인 예술전문도서관으로 자리잡았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전문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자료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술전문도서관 '다감'에서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DB'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일이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서비스를 시작한 문화예술DB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800여명의 예술인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공연기획



예술도서관 '다감'에서 수집하고 있는 50여종의 정기간행물과 서적, 멀티미디어 자료들



자나, 시민들 누구나가 간단히 검색할 수 있다. 검색에는 그들의 이력과 공연소식 등도 상세히 소개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된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직접 재조사하는 등 '문화예술DB'에 쏟는 정성이 대단하다.

'다감'만의 독특한 서비스 중에 '온라인뮤직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다. 이는 Naxos라는 세계 유명 기업의 음원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또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악보에서부터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음반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어 음악예술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런 서비스와 함께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료를 선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다감'은 일반서적들보다는 멀티미디어자료들과 새로운 정보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정기간행물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한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력을 통해 도서관에서는 국내 유수의 도서관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 감상', '멘토와 멘티의 만남', '부천문화예술DB 뉴스레터', '다감 소식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